

<전우치전>으로 살펴본 영웅소설의 변화*

안 창 수**

차 례

I. 머리말

II. 기록에 나타난 전우치

III. 이본분석과 변화의 양상

IV. 맺음말

국문초록

실재했던 인물이었던 전우치와 그를 소설화한 <전우치전>을 통해 영웅소설에 나타났던 변화의 한 양상을 살펴보려 했다. 분석의 결과, 실재 인물 전우치는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으나 소설 <전우치전>은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전우치에게서 비판적 사회의식을 거세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경판 37장본과 김동육본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경판 37장본에서 김동육본으로 그리고 신문관본으로 이어지며 <전우치전>은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되고 있었다. 이것은 <전우치전>의 개작자들이 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문제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 국어교육과

의식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 영웅소설, 민중적 영웅, 사회의식

I. 머리말

영웅소설은 전설이나 민담 그리고 신화의 형태로 민중들 사이에 전승되어 오던 민중영웅담을 모형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성립시기도 16세기까지 소급된다. <전우치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우치의 영웅적 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중적 지지기반을 갖고 폭넓게 전승되고 있던 민중영웅담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있다는 데에서 영웅소설 가운데에도 민중적 영웅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민중적 영웅소설은 우리나라의 소설사에서 전기소설과 함께 초기의 소설사를 주도하고 있었다. <최고운전>, <홍길동전>, <임경업전>, <전우치전> 등 현존하는 민중적 영웅소설은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비판적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중들의 역사 의식과 민족의식을 구현하려 했다.¹⁾ 그러나 현존하는 이본을 대상으로 추정해 볼 때, <전우치전>의 이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847년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37장본 경판본이다. 경판 37장본이 모본(母本)으로 삼은 선행 이본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전우치전>의 성립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초에서 중기까지의 시기

1)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동아문화』제10집, 서울대, 1971, 188~206면).

조동일, 고전소설과 정치(『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7, 118~121면)

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9세기는 우리나라의 소설사에서 영웅소설이 중심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영웅소설의 통속화가 활발하게 전개되며 민중적 영웅소설을 대신해서 지배질서의 이념을 옹호하며 개인적 영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영웅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²⁾ <전우치전>은 민중적 영웅소설에 속하는 작품임에도 영웅소설의 통속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었던 것이다. 작품으로서의 본래적 속성과 당시의 소설사적 조건이 서로 어긋나 있던 것이 <전우치전>에 부여된 창작조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우치전>을 연구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이본에 따른 의미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다루는 인물과 작품의 제목이 동일하고 내용의 일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뿐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본이 존재함으로써 단일한 작품으로서의 통일된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일한 작품으로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본이 존재하는 것은 <전우치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힘이 길항적(拮抗的)으로 작용하고 있던 창작조건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우치전>은 바로 그런 점에서 19세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웅소설이 변화를 모색해 가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우치전>은 실재했던 인물인 전우치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것은 실재했던 인물인 전우치가 어떤 식으로든 작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에 나타난 전우치가 어떤 인물이었든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전우치전>의 이본을 분석하여 19세기의 우리 영웅소설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변화의 한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2)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앞의 책, 193~198면).

II. 기록에 나타난 전우치

<전우치전>은 역사상 실재했던 인물인 전우치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실존 인물 전우치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나 작중 인물이 일정한 모습으로 규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우치가 어떤 인물이었든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실재했던 인물이었음에도 전우치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야담이나 잡록 등의 기록에서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보면 전우치는 도술(道術)을 잘 했던 도사(道士) 또는 술사(術士)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우치는 도술 솜씨 못지않게 시(詩)를 잘 지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도술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허구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그가 지은 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어 실제 인물 전우치가 어떤 인물이었든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허균(許筠)은 전우치의 시가 매우 맑고 빼어나다고 했고,³⁾ 이기(李塈)도 그의 시어(詩語)가 깨끗하고 시원하다고 평했다.⁴⁾ 김택영(金澤榮)은 전우치의 시를 평하며 시상이 맑고 시어가 빼어나서 한 시대를 주름잡을 만하다고 하며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⁵⁾ 전우치 스스로도 자신의 문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당시의 명문장가들을 우습게 알았다고 하기도 한다.⁶⁾

전우치의 시가 맑고 깨끗하며 격이 높다고 하면서 여러 평자(評者)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시는 삼일포(三日浦)에서 지었다고 하는 시이다.

3) 羽士田禹治 人言仙去 其詩甚清越(許筠, 惺叟詩話(『惺叟覆瓿藁』卷二十五).

4) 田禹治海西人也 不學而能文 詩語洒落(李塈, 松窩雜說, 『大東野乘』卷五十六).

5) 觀其思致之清 音節之亮 要爲翩翩一代之詩人(金澤榮, 『崇陽耆舊傳』)

6) 田文章最高 其時八文章及鉅手 諸大家 田皆藐視之(李德洞, 『竹窓閒話』(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秋晚瑤潭霜氣清 늦은 가을 옥같은 연못에 서리 기운 맑은데
天風吹送紫簫聲 하늘 바람 자줏빛 통소소리 불어 보낸다
靑鸞不至海天闊 푸른 난새는 오지 않고 바다와 하늘은 넓기만 한데
三十六年明明 온 세상에는⁷⁾ 달빛만 밝게 비추고 있다⁸⁾

늦은 가을 삼일포의 옥빛 호수와 서리 기운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푸른 난새와 밝은 달이 함께 어우러지며 맑고 깨끗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자줏빛 통소소리를 들으며 푸른 난새를 타고 노닐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냄으로써, 세속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에서 노닐고자 하는 탈세속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초월적 세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는 세속적 명리에서 초연한 보다 심오한 정신세계를 지향함으로써 이 작품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작품은 고독과 허무 그리고 애상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문제는 타고 올라 창천을 마음껏 누비고 다녀야 할 푸른 난새가 오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난새는 시인이 속세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난새가 오지 않음으로써 시인은 속세에서 삶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탈세속의 세계를 지향했지만 결국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중간자로 외롭게 남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무한대로 펼쳐진 바다와 하늘 그리고 드넓은 온 세상을 가득 메우며 빛나는 달빛을 쳐다보며 망연히 서있는 시인의 모습에는 소외된 자의 고독뿐만 아니라 탈세속의 세계를 지향했음에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자의 허무와 애상이 짙게 배어있다.

7) 이 부분의 “三十六年”이 김택영(金澤榮)이 지은 『송양기구전(崧陽耆舊傳)』에는 “三十六峰”으로 되어있다. 필자자에 따라 “三十六”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필자는 3句와의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여 “三十六”을 도교에서 신선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신선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인 “삼십육천(三十六天)” 또는 “삼십육통천(三十六洞天)”으로 해석하여 공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 경우 “三十六”은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가득 메우는 온 세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8) 許筠, 星叟詩話(『성수부부고(惺叟覆瓿藁)』 卷二十五)의 작품임.

허무와 애상은 전우치의 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정서이다.

落花流水斜陽外 흐르는 물에 떠내려 오는 꽃잎 석양 너머로 사라지고
斷雨殘雲城郭間 비 그친 뒤 남은 구름 성곽 사이에 비껴있네
遼鶴不來人事盡 요동의 학⁹⁾은 오지 않았는데 인간세상의 일은 다하였고
百年消息鬢毛斑 백년의 성쇠에 귀밑머리만 희어졌다¹⁰⁾

남효온(南孝溫)의 <만월대(滿月臺)>시에 차운(次韻)해서 지었다는¹¹⁾ 7언 율시인데 후반부를 옮겨왔다. 경련(頸聯)에서는 선계에서 흘러나와 물에 떠내려 오는 꽃잎과 저물어 가는 석양을 대비시켜 놓은 후에 비가 그친 뒤 성곽에 비껴 있는 구름을 끌어오고 있다. 선계에서 나와 물에 떠내려 오는 꽃잎과 성곽에 비껴있는 구름은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게 되는 존재들이다. 선계를 찾으려는 노력이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초초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련(尾聯)에는 결국 선인이 타고 갈 학은 오지 않았는데 인간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시인의 안타까운 처지가 나타나 있다. 선계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뒤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쳐다보며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인의 서글픈 심정이 삶에 대한 무상감과 뒤섞이며 허무와 애상의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우치의 시에 나타나는 허무와 애상은 선계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결과였다. 전우치의 시로 알려지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6편의 시 모두가 선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전우치의 시에는 선계에 대한 동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9) “遼鶴”의 해석은 박희병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소명출판, 2005. 4, 558면)의 것을 참고했음. 옛날 정령위(丁令威)라는 사람이 신선술을 배운 뒤 鶴이 되어 고향인 遼東으로 돌아왔다는 것임.

10) 李德洞, 『竹窓閑話』(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에 실려 있는 작품임.

11) 次南秋江滿月臺律曰(李德洞, 앞의 책).

그런데 다음의 시는 전우치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선계를 지향하려 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紫蛙周禮正王法	왕망(王莽) ¹² 의 주례는 왕법을 바르게 했고
南相文章眞伊周	남곤(南袞) ¹³ 의 문장은 진실로 이윤과 주공을 닮았도다
璞亦璞鼠亦璞 ¹⁴	옥덩이도 옥이이지만 쥐도 또한 옥이요
隋珠珠魚目珠	隋侯의 구슬 ¹⁵ 도 구슬이지만 고기 눈알도 구슬이라며
蠅蛇嘲龍眞龍羞	도룡뇽과 도마뱀이 용을 조롱하니 진짜 용이 부끄러워한다
山人掉頭歸去早	산사람이 머리를 흔들고 일찍 돌아가니
桂樹丹楓月好	계수나무 붉은 곳에 풍월이 좋구나 ¹⁶

『죽창한화(竹窓閑話)』에 실려 있는 것으로 전우치가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켰던 남곤(南袞)의 무리를 풍자하여 지었다고 하는 시이다.¹⁷ 1구와 2구에서는 왕망과 남곤을 등장시켜 그들이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위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혔던 악행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구와 2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뒤집어 보아야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12) “紫蛙”는 『한서(漢書)』 卷九十九 왕망전(王莽傳)에 나와 있는 “紫色蠅聲 餘分閭位”의 “紫色蠅聲”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紫色蠅聲”은 왕망이 현란하고 사악한 말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행위의 주인공인 “왕망(王莽)”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13) 『죽창한화(竹窓閑話)』에서 이덕형(李德炯)은 이 작품이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켰던 남곤(南袞)의 무리를 풍자하여 지은 것이라고 했다(又刺南袞諸人而作古詩曰). 남곤은 종종 때 영의정을 지냈고 문장으로도 이름을 날렸으므로 “남상(南相)”은 남곤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14) “鼠亦璞”의 해석은 박희병, 앞의 책(558쪽)의 것을 참고했음. 중국 鄭나라에서 말리지만 하고 포(脯)로 만들지 않은 쥐를 ‘璞’이라고 부른 데에서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음을 비꼰 것이라는 의미임.

15) “隋侯”의 해석은 박희병, 앞의 책의 것을 참고했음. 隋侯가 다친 뱀을 치료해 주니 그 뱀이 明月珠를 물고와 보답했다는 것임.

16) 李德炯, 앞의 책에 있는 작품임.

17) 각주 13)을 참고할 것.

왕망은 요순(堯舜)에서 삼대(三代)까지 시행되며 실효를 거두었던 제도라고 하며¹⁸⁾ 정전제(井田制)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옛날의 제도 특히 주공(周公)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주례(周禮)』에 의거한 개혁으로 어지러웠던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역사에서 왕망은 <주례>라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과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을 도탄으로 내몰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평가받고 있었다.¹⁹⁾ 그러므로 왕망이 주례로 왕법을 바르게 했다는 것은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왕망의 표리부동한 행위를 풍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곤은 종종 때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며 대제학이 되어 문형(文衡)을 맡을 만큼 탁월한 문장력으로 명성을 떨쳤다.²⁰⁾ 그러나 사장파(詞章派)의 대표주자로 지목되며 경학(經學)을 내세웠던 조광조 등과 반목하게 되자 기묘사화(己卯土禍)를 일으켜서 신진사류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남곤은 신진사류들이 자기들끼리 결탁하여 세력을 믿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국가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²¹⁾ 이후 국권을 장악한 사림파로부터 사람을 해치려 음모를 꾸미고 아첨하는 말로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을 어지럽힌 인물이라고 비난받았다.²²⁾ 그러므로 남곤의 문장을 이윤(伊尹)과 주공(周公)에 비긴 것은 그가 이윤과 주공처럼 국가질서를 수호하는 자로 자처했지만 사실은 소인배에 불과한 자였다는 것을 풍자하려는 것이었

18) 莽曰 古者設廬井 八家一夫一婦田百畝 什一而稅 則國給民富而頌聲作 此唐虞之道 三代所遵行也(班固, 『漢書』 卷九十九, 王莽傳).

19) 왕망의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任仲燾, 王莽의 개혁과 평가(『東洋史學研究』 51輯, 동양사학회, 1995, 1~82면)의 글을 참고했음.

20) 남곤의 탁월한 문장력과 경륜에 대해서는 이종목, 南袞의 삶과 문학(『한국한시작가연구』 4집, 한국한시학회, 1999, 33~74면)의 것을 참고했음.

21) 중종실록 14년 11월 15(을사)일.

22) 명종실록 14년 10월 23(경신)일

다.

이런 점에서 왕망과 남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왕망은 못 사람들로부터 이윤과 주공의 덕행을 갖춘 대인이요 군자로 추대되었고,²³⁾ 남곤 또한 대단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추앙받았지만 기실 이들에게는 모두 대인과 군자를 참칭한 자들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던 것이다.²⁴⁾

소인이 군자로 행세하고 위선과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세상에서 참다운 가치를 가진 사람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 3구와 4구는 쥐를 옥이라 하고 고기의 눈알을 구슬이라고 주장하는 세태를 내세워 가짜가 진짜로 행세하고 거짓이 진실로 호도되는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폭로하고 있고, 5구에서는 그 겉과 진짜 용이 도룡뇽이나 도마뱀 따위에 게 밀려나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처럼 진실이 외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고 있다.

6구 이하는 혼탁한 현실과 잘못된 사회질서에 대해 분개했던 시인이 현실에서 눈 돌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보며 위안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수나무 붉게 물든 자연은 산사람(山人) 즉 선인들이 사는 곳이다. 전우치가 진실이 외면되는 현실에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선계를 지향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계를 지향하는 것이 전우치에게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선계를 지향하는 것과 잘못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동

23) 『한서』 왕망전에는 왕망이 이윤과 주공의 덕행을 함께 갖추었다고 하며 두 사람의 벼슬을 합친 재형(宰衡)의 벼슬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데(及民上書者八千餘人 咸曰 伊尹爲阿衡 周公爲太宰 周公享七子之封 有過上公之賞 有司請還前所益二縣及黃郵聚 新野田采 伊尹周公稱號 加公爲宰衡 位上公(『漢書』卷九十九), 왕망전은 도처에서 왕망이 이윤과 주공의 덕행을 갖춘 인물로 추앙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4) 근대 이후 왕망과 남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전우치의 시를 다루고 있는 이 글에서는 근대 이후의 새로운 역사적 평가는 거론하지 않는다.

전의 양 면처럼 맞물려 있을 때, 선계의 지향은 잘못된 사회질서를 바꾸려는 구체적인 사회개조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우치는 행동으로 사회를 개조하려 하기보다 선계에 침잠하여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불만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晴窓有月梅三昧 비 갠 뒤 달 밝은 창가에서 매화는 삼매의 고요 속
에 빠져있고
碧海無雲鴈六通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바다에서 기러기는 무한대의
하늘을 나네²⁵⁾

『죽창한화』의 것을 인용했는데 이덕형은 이 작품을 평하여 시격(詩格)이 지극히 높다고 했고,²⁶⁾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이수광(李睟光)은 그 말이 도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²⁷⁾

위의 시에는 행위의 두 주체인 매화와 기러기가 나오는데 시의 문맥을 더듬어 보면 매화는 시인 자신이고 기러기는 시인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삼매(三昧)와 육통(六通)이 두 주체인 매화와 기러기의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삼매는 잡념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고, 육통은 삶의 모든 이치에 통달해 어느 한 곳으로도 막히지 않아 자유로운 정신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²⁸⁾ 비 갠 뒤 달 밝은 밤 창가에 홀로 앉아 고요히 한 곳에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기러기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바다 위 무한대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듯이 정신은 육체와 현실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25) 李德洞, 앞의 책에 있는 작품임,

26) 詩格極高(李德洞, 앞의 책).

27) 其言似有道者(李睟光, 『芝峰類說』 卷十八 技藝部).

28) “六通”은 『莊子』 天道の “明於天 通於聖 六通四辟於帝王之德者 其自然也 昧然無不靜者矣”에 나오는 것으로 삶의 여섯 가지 이치 즉 삶의 모든 이치에 통달해 등서남북 어디로도 막히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전우치의 시에는 “昧”과 “通”이 대비되어 있는데 『莊子』에도 “昧”과 “通”이 대비되어 있어 전우치의 시에 나오는 “六通”이 『莊子』의 天道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통연(通然)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전우치는 신선을 찾아 산으로 들어가서는 맑은 시냇물에 손을 담그고 자지가(紫芝歌)를 부르며 자족하는 모습을 드러낸 시를 남기기도 했는데²⁹⁾ 이러한 모습은 그가 선계를 지향함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누리려 했고 그것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을 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있는 시를 분석하여 찾아본 전우치는 가치가 전도되고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비판적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려 하기보다 선계를 지향함으로써 탈세속의 공간에서 노닐며 그곳에서 정신의 자유를 얻는 것으로 불만을 해소하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우치는 비판적 안목을 갖고 있었음에도 행동하기보다는 정신의 자유를 추구했었고, 이런 점에서 전우치의 선계지향은 현실도피적인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허무와 애상의 정서적 반응도 현실도피에서 파생되는 자기연민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詩)는 실재했던 인물인 전우치가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다. 시 외에 전우치의 인간됨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그에 관한 설화이다. 시는 전우치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자료이며 내면세계를 통해 인간 전체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비해 설화는 허구적 자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전우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설화에 나타나는 전우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전우치의 모습이다. 서로 다른 자료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와 설화의 자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전우치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29) 鶴飛軒昂鸞羞池 三仙歸路五雲隨 頭巾好掛三花樹 手弄清溪歌紫芝(車天輅, 『五山說林』)

문헌기록에서 전우치는 도술을 잘 한 도사(道士) 혹은 술사(術士)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배척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스스로 종적을 감추거나 지배층에 의해 살해당하는 등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로 부터 배척된 이유는 전우치가 환술(幻術)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불의를 행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전우치의 도술이 환술로 평가된다면 그는 삶에 대한 크고 바른 이치나 도리와는 무관하게 자그마한 재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인 자에 불과하게 된다. 서경덕과의 도술시합에서 패한 후 자신의 재주가 환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머물렀을 뿐이라고 한 것에서³⁰⁾ 이러한 견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환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닌 사도(邪道)를 행했다는 점에서 선학(仙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점에서 당시의 지배층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였다. 문헌기록에서 전우치의 종말이 서경덕에게 제압되어 종적을 감추었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쫓기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환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의 상당수는 밥알로 나비를 만들었다든지, 공중으로 줄을 던져 천도(天桃)를 따왔다든지 하는 것들이었다. 이 정도의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그러므로 환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 전우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다른 사유를 찾아보아야 한다.

전우치에게 적용된 죄목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그가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다. 그가 저지른 불의의 대표적인 것이 환술을 사용하여 재상가의 부녀자를 음행했다는 것이다.³¹⁾ 부녀자를 음행했다는 것은 사회윤리를 어지럽힌 것으로 죽음에 이를 만한 죄목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로

30) 不料先生仙學之高 敢將小技以逞之 死罪死罪 小子所爲 乃幻術也 幻術只能愚弄世人 而不敢比較於仙術(李德洞, 앞의 책)

31) 生持冊 日夜閑習 得其妙理 幻術變化 無所不至 出入士大夫家宮闕裡 多行悖倫不義之事(李德洞, 앞의 책).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배층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은 민중들에 의해서, 아니면 전우치를 모해하기 위해 지배층에 의해 꾸며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재상가를 대상으로 욕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전우치가 당시의 지배층과 일정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우치의 시에 나타난 선계 지향이 지배층의 타락과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사회질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던 것과도 연결되며 불만의 구체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게 해 준다.

그런데 재상가를 대상으로 저질렀던 불의한 행위가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것이라면 전우치가 당시의 지배층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실제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전우치는 도술을 잘 하여 귀신을 부릴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기록이『송와잡설(松窩雜說)』에 나와 있다.³²⁾ 술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기록은『동야회집(東野彙輯)』에도 여러 번 나타난다.

도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감동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병을 치료받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몇 배로 증폭된다. 이런 점에서 도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행위는 사람들을 흡인해들이는 민중적 전파력이 크다.

의학 외적인 방법, 즉 도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당대의 지배질서나 지배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술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당대의 지배질서에 도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된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전우치가 도술로 인식되는 의학 외적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며 민중

32) 禹治坐林下 發數聲若招號者 然四隣病者 皆倏然起坐 一時俱應曰愈 自此疾平 無復傳染之患(李塹, 앞의 책)

적 지지를 얻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지배질서에 도전하도록 선동하는 불순하고 불의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우치가 환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불의를 행했다고 하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설화에서 전우치가 세력을 결집해서 지배질서에 도전하려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전우치는 도술을 잘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자그마한 재주를 자랑처럼 드러내 보이는 데 머물렀던 인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시를 분석하여 알아본 전우치도 비판적 안목을 갖고 잘못된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에도 사회질서를 개조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보다 선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설화에서 전우치는 행동하는 인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병을 고쳐주는 등의 행위로 민중적 지지를 획득해 가고 있었고, 지배층에게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었다. 재상가의 사람들을 옥보였다는 이야기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이 당시의 지배질서에 비판적이었던 전우치의 입장과 연결되며 낭만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시와 설화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전우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회질서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으로서의 모습과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민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었던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이해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우치는 사회질서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민중을 대상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었던 점에서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전우치가 민중적 영웅소설의 주인공 공으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으며, 소설 <전우치전>은 시와 설화에 나타난 전우치를 하나의 인격체로 결합하여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이본분석과 변화의 양상

<전우치전>은 경판 37장본 계열과 김동옥본 계열 그리고 구활자본 계열의 이본군으로 나눌 수 있다.³³⁾ 이 가운데 경판 37장본 계열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대략 1847년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⁴⁾ 이런 점에서 경판 37장본은 <전우치전>에 나타난 이본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려 할 때 맨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경판 37장본이 중심이 되어 이본의 변화 양상이 살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판 37장본³⁵⁾ <전우치전>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사단락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전우치의 가계 및 출생담을 소개함
2. 전우치가 여우를 만나 도술을 획득함
3. 황금들보 사건으로 조정과 대립함
4. 나라에 쫓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고 민심을 얻음
5. 벼슬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힘씀
6. 역모에 연루되어 쫓겨남
7. 돌아다니며 자신의 도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함
8. 강림도령과 서화담에게 붙들려 선계로 들어감

33) 경판 37장본과, 김동옥본 그리고 신문관본을 대표이본으로 본 것은 아래의 업적을 참고한 것이다.

윤재근, 전우치전설과 전우치전(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2.7, 54~65면).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영남어문학』 제18집, 한민족어문학회, 1990.12, 228~233면).

이현국,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문학과 언어』 7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6.5, 151~155면).

변우복, <전우치전>연구(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2, 11~49면).

34) 문범두, 앞의 논문, 228~233면.

35) 이 글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경판 37장본을 자료로 삼았다.

서사단락의 순서에 따라 경판 37장본에 나타난 <전우치전>의 특징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경판 37장본 <전우치전>은 다른 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전우치의 가계와 출생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우치의 부친인 전숙은 “디디 공후 즈손”으로 되어 있고, 모친은 “잠영거족(簪纓巨族)”의 자녀로 되어 있다. 부모가 고귀한 집안의 자손임을 내세워 전우치 역시 부모의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천신(天神)의 자손임을 내세워 영웅의 탁월한 능력의 원천이 고귀한 혈통에 있다고 보는 신화시대 이래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몽도 나와 있다. 전우치는 자신이 영주산 선동(仙童)임을 밝히는 청의동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모친에게 몸을 의탁하는 꿈을 꾸고 잉태되어 태어난다. 태몽은 전우치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이다.

고귀한 혈통과 태몽을 통해 전우치의 비범함이 예고되었듯이 전우치는 글을 배울 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총명함을 드러내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다. 그러나 열 살이 되어 부친이 돌아가시자 전우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장례를 치름에 예(禮)에 어김이 없고 효성으로 부모를 모셔 마을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부친의 죽음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전우치의 능력이 탁월하고 효성이 지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 전우치의 삶은 부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존질서를 자신의 질서로 받아들이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부친은 죽음에 앞서 아내에게 “운치를 양육하여 영화를 보고 조선 향화를 밋드러 빅세 무양”할 것을 당부했고, 전우치는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향시(鄉試)를 보아 장원을 하는 등 장차 벼슬을 하기 위한 길을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전우치가 지배질서의 틀 안에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민중적 영웅소설에 속해 있는 <최고운전>이나 <홍길동전>의 주

인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최고운과 홍길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배질서에서 튕겨져 나와 버림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우치에게는 최고운이나 홍길동처럼 지배질서에 맞서 민중적 영웅으로 활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전우치가 여우에게서 도술을 획득한 다음 지배질서에 적대적인 인물로 바뀌는 변화가 돌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평탄하게 흘러가던 전우치의 삶은 여우를 만나 호정(狐精)과 천서(天書)를 얻어 도술을 획득하게 되면서 바뀌게 된다. 부친의 죽음 이후 전우치는 부친의 친구인 윤공에게 가서 글을 배우게 된다. 이 때 전우치는 여우를 만나 호정을 얻어 천문지리에 통하고 일흔두 가지 변화를 부리는 재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세금사라는 절에 가서 다시 여우를 만나 천서를 얻어 못하는 술법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에 이르자 전우치는 돌연 “과업의 뜻지 업서” 과거를 포기한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되 너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하고는 임금을 속여 황금들보를 탈취하고는 나라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고귀한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나 탁월한 재능을 갖고 지배질서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던 전도유망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모친을 봉양한다는 구실 아래 임금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나라에 쫓기는 신세로 돌변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전우치가 과거를 포기하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된 데에는 어떠한 사회적 동기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도술을 습득한 뒤 돌연히 과업에 뜻이 없어졌다는 것이 나타난 동기의 전부이다.

임금을 속여 황금들보를 탈취하고 도술로 관리와 임금을 농락하는 행위도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모친을 봉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행위의 동기인데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멋대로 나라의 재물을 탈취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들을 농락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명분이 서지 않는 행위이다. 황금들보를 탈취한 뒤에도 전우치는 그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모친을 모시고 산중의 드러 은즈를 쓰며” 편하게 지내고 있을 뿐이었다. 개인의 안락을 위해 탈취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우치가 어느 날 갑자기 과업을 포기하고 인생의 진로를 바꾼 것은 도술을 습득한 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사회의 질서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힘들게 얻은 돈도 개인의 안락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작란을 일으킨 것이 단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과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전우치에게는 민중적 영웅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어떠한 사회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지배질서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전우치가 임금과 조정을 농락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을 대신해서 충족시켜주는 효과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전우치의 행위는 지배질서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낭만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충족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전우치는 민중적 영웅이라기보다 민중적 환상을 대신해서 충족시켜주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⁶⁾ 전우치의 행위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의 위에 서있지 않고,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환영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황금들보를 탈취한 뒤 도망쳐서 모친을 모시고 산 속에서 숨어살던 전우치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가 하면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기도 한다. 전우치의 구체행위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살인사건을 담당한 관리와 살인자가 공모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던 백발노인의 아들을 구해주는 것이다. 백발노인의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술을 사용하여 구해주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해결한 전우치는 백성에게서 돼지머리를 뺏으려 하는 관리를 혼내

36) 전우치를 민중적 환상의 주인공으로 표현한 것은 이런 점에서 적절한 표현이다.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고소설연구』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66~71면).

주기도 하고, 문서를 잘못 다루어 애매하게 죽게 된 호조의 창고직이 장세창을 구해주기도 한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타락하고 무능한 관리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전우치가 구해주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우치는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울리며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의 주인인 소생과 설생의 거만함을 혼내준다. 그리고 가난하여 부친의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이 없어 통곡하고 있는 한재경이란 사람을 만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타락하고 무능한 관리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주는가 하면, 가진 자들의 거만함을 혼내주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전우치는 비로서 민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우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했다. 백발노인의 아들을 구해줄 때 전우치는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관리에게 나타나서 살인사건의 전모를 알려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돼지머리를 뺏으려 하는 관리를 혼내줄 때에는 돼지머리가 입을 벌려 물어뜯으려 하게 함으로써 관리가 놀라서 도망가게 하고, 장세창을 구할 때에는 바람이 되어 형장에 있는 장세창을 거두어 하늘로 올라가 탈출시킨다. 한재경에게는 매일 은자 한냥씩 나오는 족자를 선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도술로써 사건 자체를 해결할 뿐이지 사건이 생기게 된 사회적 조건이나 질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타락하고 무능한 관리들과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전우치는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는 눈 돌리지 않는다. 그 결과 전우치는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음에도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다. 민중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아 함께 아파하고 고뇌하지 않는다. 전우치는 세상 밖의 사람이 되어 “구름을 타고 스방으로 임의 왕녀”하다가 흡사 선물을 나누어주듯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는 또 다시 구름

을 타고 표연히 자기의 길을 갈 뿐이고, 사람들은 꿈을 꾸듯 망연히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는 전우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민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신선과 인간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전우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다니던 전우치는 자기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방(榜)을 보고는 대궐에 가서 자수를 하고, 선전관 벼슬을 받는다. 전우치가 도술로 관리와 임금을 농락하며 잡히지 않자 나라에서는 벼슬을 주어 달래는 것으로 전우치의 작란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벼슬을 받은 전우치는 “나라히 죽을 죄를 면하고 도로혀 벼슬을 바드니 천은이 망극흔지라 맛당히 회과전선하여 충성을 극진히 하리라”고 다짐한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배질서 내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 것을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벼슬을 받은 전우치가 맨 처음 한 일은 새로 들어 온 관리를 괴롭히는 선배들을 도술로 욱보이는 것이었다. 전우치에게 봉변을 당한 선배들은 “더역부도 더운치 놈이 님쥬하여 우리 등을 욱을 뵈니 어니 썩이놈을 죽여 이 한을 설치하리오” 하며 분해한다.

전우치가 선배들을 욱보인 것은 선배 관리들이 이유 없이 매질을 하거나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기를 강권하는 등 후배들에게 자행하는 신참례의 부당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우치는 선배 관리가 후배들을 괴롭히는 신참례라는 관행의 부당성을 다루지 않는다. 사회질서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 관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전우치에게 개인적으로 봉변을 당했다고 분해할 뿐이고, 전우치가 선배들을 욱보인 것은 자기에게 가해지는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행위가 될 뿐이었다. 지배질서 내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 것을 다짐한 사람이 조정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일치고는 함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전우치의 행위는

도술에 의해 난처한 지경에 빠진 선배 관리들을 쳐다보는 데에서 생기는 웃음을 선사해 줄 뿐 사회질서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

선배 관리들과의 갈등은 이후에도 다시 나타난다. 전우치는 가달산의 도적 엄준을 토벌하고 돌아온 뒤 선배 관리들이 와서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도술로 그들을 곤액에 빠뜨린 다음 기어이 항복을 받아낸다. 자기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잡아다가 곤액에 빠뜨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보복행위이고, 전우치에 의해 선배들에게 자행된 횡포일 뿐이다. 여기에서도 전우치에게는 아무런 사회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참례를 통해 후배들을 못살게 굴었던 관리들이 전우치를 만나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후련함과 웃음이 선물처럼 주어지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전우치의 행위는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폭력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단세포적인 사회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선배 관리들을 혼내준 뒤 전우치는 가달산의 도적 엄준을 토벌한다. 엄준의 토벌은 <전우치전>에서 전우치의 영웅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엄준은 전우치에게도 “괴골이 장디히고 낫빚치 붉고 눈이 방울갓고 슈염이 바늘을 묵거 세운 듯하니 진짓 일세 호걸”로 보이는 인물이고, 싸움을 할 때에는 “삼십 여 합의 이르되 엄준의 창법이 일호 차차 업는지라 운치 헤오디 무예로는 엄준을 당치 못하리라”고 할 정도로 전우치마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처럼 영웅적 능력을 갖고 있는 엄준을 상대하며 전우치는 탁월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준을 토벌하며 전우치는 지배질서를 대표하는 입장에 선다. 전우치가 엄준을 토벌하는 명분은 “너는 엇던 놈이완디 강악을 밋고 산등의 둔취하여 군현을 침노하며 백성을 살히호는다 너갓튼 쥬무리를 다 잡아 국법을 정히 하리니” 하는 것이었다. 국법을 밝히고 세우기 위한

것이 토벌의 명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전우치는 지배질서의 편에 서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우치는 선량한 백성들이 도적이 되어 엄준과 같은 인물을 추대하여 국가를 소란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잘못된 사회질서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의 경판 37장본은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엄준은 “강도 슈천을 모아 산치를 이루고 촌가의 노략하며 각 읍을 쳐 군기전량을 탈취하며 스람을 살히히니 각 읍”을 소란하게 한 죄를 지은 인물로 나와 있다. 또한 엄준은 전우치를 상대하며 “웅천순인히여 장차 무도한 님군을 업시히고 도탄의 든 빅성을 건지고즈 흐거늘”이라고 주장하며, “적장이 비록 용맹하나 내 엇지 저를 두리리오 명일은 결단코 운치를 잡아 바로 도성으로 향히리라”고 한다. 엄준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무도한 임금을 없앤 다음 중앙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무리를 지어 집단을 만들고 지방의 관아를 습격하여 군기와 군량을 탈취하는가 하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중앙정부를 전복시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인물이 무리를 이끌고 있다. 놀랍게도 이 부분의 경판본은 조정과 관리들에 의해 그들에게 붙여진 강도나 노략, 살해와 같은 적대적인 언어를 제거해보면 홍경래의 난을 필두로 하여 19세기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 지방의 관아를 습격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와도 대적했던 민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³⁷⁾ 그렇다면 가달산의 도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들은 사실 타락하고 무능한 지배층과 관리들의 탐학에 희생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무리를 지어 지배질서에 대항하고 있는 민중들인 것이고, 엄준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무도한 지배질서를 개혁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7) 가달산의 엄준을 토벌하는 이 대목의 서술 내용은 경판 37장본의 성립시기가 19세기를 상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경판 37장본은 엄준을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중의 영웅으로, 전우치는 지배질서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우치는 민중적 영웅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민중의 반발을 진압하는 입장에 서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사회질서를 문제 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배질서를 옹호하며 민중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부분에 와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엄준을 토벌하고 돌아온 전우치는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역모에 연루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도술을 부려 조정에서 도망쳐 나온다. 또 다시 전우치는 지배질서와 적대적인 관계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우치가 역모에 연루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도 관계없는 일이었다. 전우치는 오히려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국가 쇼임의 골몰호”며 자신의 역량을 다해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전우치는 “심중의 해오더 이 필연 날을 모히호는 니 이서 이리 호미니 엇지 의닭지 아니 호리오”라고 하며, 자신이 역모에 연루된 것이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을 관리들의 무능과 타락에서 오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지 않고 개인적인 원한관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우치는 대궐에서 도망쳐 나오자 조정에서 전우치를 죽이자고 주장했던 도승지 왕연회를 찾아가 옥보인다. 전우치가 왕연회를 옥보인 것은 “네 날로 더부러 원슈 업거늘 부디 날을 죽여 나라히 요공코져 호미 너 몬져 너를 죽여 한을 씨고져” 했기 때문이다. 왕연회가 역모에 연루되고 도술로 조정을 농락하는 전우치를 죽이자고 한 것은 도승지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전우치는 왕연회가 개인적인 원한관계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해석하고, 자기의 원한

을 씻기 위해 왕연희를 욕보였다고 하고 있다. 전우치의 얘기대로라면 조정에서의 모든 일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니,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공의(公義)에 우선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우치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자기의 소임을 다한 왕연희를 욕보임으로써 공의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왕연희를 욕보인 전우치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미인도(美人圖)를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전우치가 그들에게 선녀가 그림에서 나와서 술을 따라주는 놀라운 죽자를 보여주자 오생이라는 사람이 죽자를 비싼 값에 사서 선녀를 불러내어 술을 따르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 질투가 난 오생의 아내가 죽자를 찢어버리자 전우치는 오생의 아내를 구렁이로 만들어 괴롭히고 남편을 업신여겨 포악을 일삼고 투기를 한 것을 꾸짖는다.

선녀가 나와서 술을 따라주는 놀라운 그림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다른 여자와 노닥거리는 남편을 보고 질투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생의 갖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 것도 전우치이고, 그 아내의 질투를 촉발시킨 것도 결국은 전우치였다. 전우치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본능적 욕망을 자극하여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고, 오생과 그의 아내는 전우치가 파놓은 함정에 고스란히 걸려들었을 뿐인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악의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전우치에게 일방적으로 농락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우치가 오생과 그의 아내를 농락하고 괴롭힌 것은 고의적으로 악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횡포일 뿐이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오생의 집을 떠나 돌아오던 전우치는 옛 친구인 양봉안을 만나서 그가 수절과부인 정씨를 사모하여 죽기에 이른 것을 알고 도술로써 정씨를 데려다 주려 한다. 정씨는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려 했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 죽지 못하고 정절을 지키며 사는 여인이

었다. 그러나 전우치는 도술과 선약(仙藥)으로 정씨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취하게 하여 데려오려 한다.

도술과 약으로 사람을 취하게 한 다음 본인의 의지에 반(反)하여 정절을 꺾는 것은 횡포의 수준을 넘어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역모에 연루되어 조정에서 도망쳐 나온 전우치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공의를 저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려 괴롭히기도 하다가 급기야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전우치가 민중적 영웅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미덕을 점진적으로 잃어가다가 마침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전우치는 강림도령을 만나 곤욕을 치르게 된다. 강림도령은 정씨를 데려가는 전우치에게 도술을 걸어 전우치의 도술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전우치가 “하늘을 속이고 열부를 훼손코저” 한다고 꾸짖으며, 하늘의 명을 받아 전우치를 죽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우치가 늙은 모친을 들어 용서를 빌자 강림도령은 “국운이 불행하여 그대갓흔 요술이 무란히 작변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며 용서해 준다. 강림도령을 만난 후 전우치는 서화담을 찾아가 도술을 겨루지만 여기에서도 서화담에게 패하게 된다. 서화담은 “너갓흔 요술이 괴군망상하고 작난이 무상하”였다고 꾸짖으며, 전우치를 데리고 영주산으로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으려 한다.

강림도령과 서화담은 <전우치전>의 마지막에 나타나서 전우치가 기껏해야 요술(妖術)로써 세상을 어지럽힌 인물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화담은 전우치를 데리고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가르치겠다고 한다. 요술이 아닌 선도를 가르쳐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인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경판 37장본은 서화담과 전우치가 영주산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 산의 잇는 구미호를 잡아 석갑의 가도고 그 골혈을 불지르”기로 합의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산에 있는 구미호란

맨 처음 전우치에게 호정과 천서를 주어 도술을 익히게 했던 여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우치는 구미호의 호정(狐精)에 취해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것이 되고, 여우를 가두고 굴을 불사르는 것은 소란의 원인을 제거하여 전우치와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관 37장본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우치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유형의 성격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전우치는 임금을 농락하며 조정과 대립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관리들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구출해주며, 가진 자의 거만함을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사회질서에 대한 문제의식, 즉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작품 내에서 원인을 찾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지배질서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찾으려 했던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동기를 전우치에게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이 아닌 문헌자료에 나타난 전우치가 잘못된 사회질서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지닌 인물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고 차이이다.

전우치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함으로써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우치는 도술로써 사건 자체를 해결할 뿐이지 민중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 전우치를 망연히 바라만 볼 뿐이고, 사건을 해결한 전우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연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다. 민중들과의 거리는 전우치가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음에도 그를 민중적 영웅으로 부르기 어려운 요소가 된다. 이것 또한 전우치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질서를 문제 삼지 않는 사회의식의 부재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전우치는 무엇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 바로 행

동으로 옮기고 있다. 상당히 즉각적이고 즉흥적이다. 모친을 봉양할 돈이 필요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임금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를 쳐서 황금들보를 탈취한다. 사람들이 어려움 처해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주저 없이 달려들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전우치가 즉각적인 것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자체만 보고 있을 뿐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질서를 일체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의 즉각성은 전우치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게 한다. 이 때문에 전우치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일의 어려움이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전우치에게는 어떠한 고뇌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 자체를 즐기며 장난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어린 아이같은 순진함과 천진난만함을 갖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우치의 인간상인 것이다.

둘째, 전우치는 지배질서의 편에 서서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달산의 도적 엄준의 무리를 토벌하며 전우치는 영웅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그러나 가달산의 도적 무리는 타락하고 무능한 관리들의 탐학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튕겨져 나간 민중들이었을 뿐이었고, 이 때문에 경판 37장본에서 전우치의 영웅성은 빈민중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 전우치는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일을 처리해 버린다. 도승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왕연희를 이유 없이 자신을 모함하려 한 자로 마음대로 규정하고 욕보이며, 엄준을 토벌하고 돌아 온 자기를 축하하러 오지 않았다고 선배 관리들을 욕보인 것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때문에 전우치는 공의(公義)와 같은 공개념을 갖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틀로 재단해 버린다. 영웅이 자신을 버리고 집단 전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중심적인 것은 전우치를 영웅이 아닌 왜소한 인간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이었던 데에서 전우치는 행위의 정당성을 잃고 본의 아니게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선녀가 나오는 족자로 오생과 그 아내를 농락하고 괴롭힌 것도 자기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고, 이 때문에 전우치는 여자의 투기와 포악함을 꾸짖고 있지만 사실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전우치는 급기야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 마음대로 수절하는 과부를 탈취하려 함으로써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정절을 꺾어버리는 악행을 저지르며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규범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경관 37장본 <전우치전>은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를 제대로 작품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전우치에게서 사회의식을 제거시켜버림으로써 그가 민중적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없애 버렸다. 그 결과 전우치는 임금과 관리들을 농락하여 민중들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어린 아이같은 순진함과 친난만함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의식의 부재는 잘못된 사회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민중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지배질서의 편에서 민중들과 대적하게 함으로써 전우치의 반민중성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왜소한 인간으로서의 치졸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악행을 저지르다 마침내 사회의 윤리적 규범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관 37장본 <전우치전>은 소설 이외의 문헌 자료를 통해 전우치를 접하며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기대하고 있던 독자들을 실망시켰을 것이다. 전우치에 대한 전설이 실려 있는 『송와잡설(松窩雜說)』, 『오산설림(五山說林)』, 『어우야담(於于野談)』, 『지봉유설(芝峯類說)』, 『죽창한

화(竹窓閒話)』, 『해동이적(海東異蹟)』등이 모두 경판 37장본이 나오기 이전의 문헌이고 이 때문에 경판 37장본은 문헌설화를 소설화한 것으로 보인다는³⁸⁾ 점에서, 독자들은 이미 문헌자료를 통해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소설을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우치전>의 이본이 나타나며 서로 다른 의미의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육본 <전우치전>은³⁹⁾ 전우치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황금들보를 탈취하는 삽화가 들어있지만 경판 37장본과는 판이하게 다른 작품이다. 이 때문에 김동육본은 경판 37장본과는 다른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⁴⁰⁾ 그러나 김동육본은 <전우치전>의 이본으로 보아야 <전우치전>의 변화 양상이 온전하게 파악될 수 있다.

김동육본 <전우치전>의 필사(筆寫) 시기는 1883년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경판 37장본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이고 있다.⁴¹⁾ 이것은 김동육본이 경판 37장본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독자들의 기대치를 수렴하면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판 37장본이 방각본(坊刻本)으로 찍혀 나와 대량 유통되었고, 이런 점에서 김동육본의 작가에게도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런 추정은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동육본은 경판 37장본을 개편 내지는 개작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의 기대치를 수렴하면서 경판 37장본의 내용을 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경판 37장본에 나타난 전우치는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38) 이현국, 앞의 논문, 144~150면.

39) 김동육본의 자료는 김일렬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5』(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12)의 것을 텍스트로 삼았다.

40) 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 설화(『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4, 242~243면).

41) 문범두, 앞의 논문, 230~233면.

것이기도 하다.

김동옥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전우치의 부친 전중보는 강원도 원주 감영의 관노였으나 흉년에 빈민을 구휼한 공로로 동래 부산 첨사가 된다.
2. 선동이 찾아오는 태몽을 꾸고 우치를 낳는다.
3. 우치는 어려서부터 기상이 빼어나 과거를 보라는 부친의 명을 따르지 않고 중국에 가서 공명을 떨치려고 한다.
4. 집을 떠나 천하를 유람하다가 도적의 산채에 들어가 그들의 상장군이 된다.
5. 부하들과 영천사의 재물을 털어오고, 황제를 속여 황금들보를 탈취한다.
6. 황제가 속은 것을 알고 우치를 잡으려 하나 우치는 오히려 황제를 협박하여 각로 벼슬을 요구한다.
7. 우치가 조선인인 것을 안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조서를 보내 우치를 잡아오게 한다.
8. 우치가 임금에게 나아가 황금들보를 탈취한 연유를 말하고 부친에게 강원 감사를 제수하면 잡혀가겠다고 한다.
9. 임금이 우치의 말대로 하고 우치를 잡아서 중국으로 보낸다.
10. 중국에 가서 황제를 협박하여 각로 벼슬을 받고 도적들의 산채로 돌아온다.
11. 우치가 연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
12. 연나라 국왕에게 재주를 보여주어 부마가 되고, 마침내 연나라 왕이 된다.

줄거리로 보면 김동옥본은 전우치가 도적의 대장이 되어 재물을 탈취하고 나라를 소란하게 했다는 데에서는 <홍길동전>의 모티프를, 중국에

들어가서 공명을 떨쳤다고 하는 데에서는 <최고운전>의 모티프를 빌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동옥본은 전우치가 임금을 속여 황금들보를 탈취하는 등 대단한 도술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경판 37장본의 기본 줄거리에 <홍길동전>과 <최고운전>의 모티프를 엮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김동옥본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이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여 마침내 뜻하던 바를 성취했다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적 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영웅적 성취담을 드러내는 이러한 서사적 틀은 특히 19세기에 유행했던 통속적 영웅소설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김동옥본은 당시의 통속적인 영웅소설의 서사적 문법에 보다 충실하려 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속적 영웅소설의 서사문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라도 그 속에는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를 담아내려 했던 것이 김동옥본이었다. 김동옥본은 <홍길동전>과 <최고운전>의 모티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민중적 영웅소설에서 모티프를 차용함으로써 김동옥본의 작가가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를 그리려는 창작동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옥본은 다른 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전우치의 가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전우치의 부친 전중보는 강원도 원주 감영의 관노였다. 그러나 나라에 흉년이 들자 수만 석 벼를 풀어 빈민을 구제할 공로로 동래 부산 첨사가 된다. 노비였던 전중보가 국가에 공을 세워 고급관리인 당상관(堂上官)이 된 것은 인간승리의 한 표본이고, 이런 점에서 전중보는 민중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시해 주는 영웅으로 추앙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전우치의 부친이 노비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 또한 김동옥본이 전우치의 민중성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우치는 자라나며 “과거를 축실이 보아 나라의 충신이 되어 일

흙을 후세의 전후라(210)”는 부친의 권고를 듣지 않고 집을 나가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 대장이 된다. 지배질서 내의 인물로 살기보다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곳에서 전우치는 도적의 무리와 힘을 합쳐 영천사라는 절의 재물을 털고, 황제를 속여 황금들보를 탈취한다. 그리고 도적들에게 “일후는 불의지스를 맡고 혹 불상흔 스람을 보면 각각 구제후라(238)”고 명령하여 활인(活人)하기를 힘써서 사람들이 전우치의 일당이 모여 사는 곳을 활인동이라 부르게 한다. 경판 37장본의 전우치가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반민중적인 성향마저 드러내고 있었던 데 비해 김동욱본은 전우치의 민중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동욱본 역시 지배질서 내의 인물로 남기를 거부하게 되었던 사회적 동기가 전우치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 부친이 원주 감영의 관 노였음에도 전우치에게는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전우치는 부친의 의도대로 절에 들어가 고승에게 글을 배우며 지배질서 내에서의 영달을 꿈꾸는 인물로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집을 찢는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과인흔 술법을 비와 세송의 못할 일이 읍(210)”게 되자, 전우치는 돌연히 “장부 세송의 처후여 엇지 소국의 머물니오(210)”라는 심중의 변화를 겪게 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에 의해 증폭되어진 더 큰 세상에 대한 동경이 전우치의 일탈을 부추키는 동기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다.

사회적의식의 부재는 김동욱본에서도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 그들과 한 패 거리가 되고 영천사와 황제의 재물을 털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음에도 전우치의 행동에는 사회적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전우치가 민중적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도적들과 함께 행동하면서도 민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전우치는 시종일관 “남아 세송의 느서 공명을 바랄진디 더국 더원슈 인슈와 상장

군 절월을 가지고 횡횡 천호호여 괴운을 펴미 맛당호거날(212)”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 민중들과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우치가 영천사와 황제의 재물을 털어 사람들을 구제하는 행위도 자신의 공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중국에 가서 공명을 떨치기를 원했던 전우치는 중국의 황제에게서 황금돌보를 탈취하고는 그 이유를 “디국이 미양 우리 조선을 업수이 여기 디 불승분통호여 니 지조를 비양호(240)”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또한 황제에게 벼슬을 받을 때에도 “나를 각노 벼슬을 주시면 항복호려니와 만일 그러치 아니면 나를 잡지 못홀 거시오 장차 큰 환이 잇사오리다(240)”고 협박을 하여 강제로 받아내고 있다. 중국이 조선을 업신여기는 통분함을 황제의 면전에서 바로 지적하여 말하는 것만으로도 민족적 울분이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우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벼슬을 받는 데 있어서도 중국을 위해 공을 세운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위력(威力)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받아냄으로써 통쾌한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개국 이래 중국과의 사대(事大)관계를 국가의 확고한 정책으로 확립하고 있던 조선의 지배층으로서는 중국에 맞서서 민족적 가치와 존엄을 주장할 형편이 아니었다. 특히 임진년(壬辰年)과 병자년(丙子年)의 전쟁을 치르며 조선후기의 지배층은 중국에 더욱 종속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지배질서를 재확립하려 했다.⁴²⁾ 이런 점에서 전우치가 보여주고 있는 민족주의적 태도는 지배층에 의해 억눌려 있던 민중적 욕구가 분출

42) 송시열(宋時烈)은 숙종 임금에게 올린 글에서 병자호란이 있는 지 이미 50년이 넘었음을 지적하며 지배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황제가 언제나 동쪽으로 흐르고,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명나라를 섬기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宋時烈, 論大義仍陳尹拯事疏, 『宋子大典』卷十五). 송시열의 이 주장은 조선후기 지배층의 대중국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우치가 민중들의 욕구를 자기의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김동욱본은 전우치가 민중적 영웅임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김동욱본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우치에게는 중국에 들어가 공명을 이루려는 포부를 갖게 된 사회적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우치는 조선보다 더 큰 공간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을 뿐이고,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전우치는 중국이 조선을 업신여기는 것이 통분하여 황제와 조정을 농락하고 협박하여 벼슬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우치가 이러한 사회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전우치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자기의 사명으로 삼지 않는다. 그 결과 중국에서의 활약은 전우치 개인의 출세와 영달로 귀결될 뿐이었고, 조선을 업신여기는 통분함을 씻으려 했다는 것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공허한 이야기로 변질되고 있다. 민중적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욕구를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전우치는 여전히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판 37장본에 비해 김동욱본은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경판 37장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김동욱본의 전우치에게도 사회의식을 제거해버림으로써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모습보다는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달과 공명이라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해 가는 것이 전우치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김동욱본에 나타난 민중적 영웅성의 희석도 전우치가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우치에게서 사회적 문제의식을 제거시킨 것은 당시의 조선사회가 지배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민중적 영웅소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민중적 영웅을 주인공으

로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질서의 편에 서서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추구하는 통속적 영웅소설의 서사문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민중적 영웅의 모습을 제대로 형상화할 수 없었던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활자본 계열의 이본군에서는 신문관본을 텍스트로 사용한다.⁴³⁾ 신문관본은 구활자본 계열의 이본군 가운데 가장 먼저 활자화된 것으로 보이며, 뒤 이어 나타난 영창서관본이나 광동서관본 등의 모본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⁴⁴⁾ 신문관본은 크게 보아 경판 37장본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판 37장본의 개작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문관본이 경판 37장본의 대체적인 서사적 줄거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부분적인 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문관본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경판 37장본의 도입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우치의 가계와 태몽을 소개하는 내용과 여우에게서 도술을 획득하는 삽화를 없애버렸다. 그 대신 신문관본은 전우치를 송도(松都)의 선비로 신선의 도를 배워 자취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은자적 인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적의 노략과 흉년에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관리들이 이것을 방치하는 데에 통분함을 느껴 전우치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빅성의 참혹한 형상 이로 붓으로 그리지 못홀지라 그러나 죠덩에 벼슬하는 이들은 권세를 다토기에만 눈이 붉고 가슴이 탈 쏘이오 빅성의 절고는 모르는 듯키 버려두니 뜻 잇는 이의 팔을 땸내여 통분함이 날을 길 업더니 우치 쏘흔 참다 못하여 그윽히 뜻을 결단하고 집을 버리며 세간을 헛치고 텃하로써 집을 삼고 빅성으로써 몸을 삼으려 호더라

43) 신문관본의 자료는 김일렬 역주(앞의 책)의 것을 사용하며, 인용문의 경우 끝에 면수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44) 윤재근, 앞의 논문, 56~57면.
변우복, 앞의 논문, 38~46면.

(284)”

전우치가 도탄에 빠진 백성과 이를 방치하는 관리들을 보며 잘못된 사회질서에 통분함을 느끼고 민중들의 편에 서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신문관본은 경판 37장본이나 김동욱본과 달리 전우치에게 명확한 사회의식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에 나온 전우치는 곧 바로 대궐로 가서 도술을 사용하여 임금에게서 황금들보를 탈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쌀 십만 석을 사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개 나라는 백성을 뿌리 삼고 부자는 빈민의 돈들어 쭈미어늘 이제 너희들이 량순흔 백성과 충실흔 일군으로 이리툃 참혹흔 디경에 니르렀 건만은 벼슬흔 이가 길을 트지 아니호고 감열흔 이가 힘을 내고자 아니 흠이 과연 턴리에 어그러져 신인이 공분흔는 바이기로 내 하늘을 더신 호여 이리더러흔 방법으로 이리더리 호앗습이니(288)”

나라는 백성으로 뿌리를 삼는 것이니 임금과 조정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전우치는 자신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우치는 민중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아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잘못된 사회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전우치는 비로소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식으로 무장함으로써 전우치가 임금을 속여 황금들보를 탈취한 행위도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조정과 맞선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

었다. 황금들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정에 쫓기게 되었을 때에도 전우치는 “원컨대 군신간 신의 죄를 다스릴 정신으로 빅성이는 더 편안케 흠이 올 흠가 흐느이다(294)”고 하며, 도술로 임금과 조정을 농락하며 유유히 도망쳐 나온다. 조정을 상대로 한 전우치의 모든 행동이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문관본은 전우치가 엄준의 무리를 토벌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판 37장본의 반민중적 성향을 희석시키고 있다. 엄준을 단순히 양민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도적으로 묘사하며 경판 37장본에 나타난 엄준의 민중적 영웅성을 제거하는 한편 전우치에게는 단지 임금의 명을 받아 엄준을 잡으러 온 것으로 하여 그의 반민중성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신문관본은 도입부를 제외하고는 경판 37장본의 줄거리와 삽화를 거의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전우치를 민중적 영웅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문관본이 모본으로 삼은 경판 37장본은 여러 개의 삽화들을 나열해서 늘어놓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에서 종결까지 다수의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한 편의 완결된 서사구조를 이루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판 37장본의 삽화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이야기로도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삽화와 삽화 사이의 비계기적인 불연속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신문관본이 전우치를 온전히 민중적 영웅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판 37장본의 모든 삽화들에 일일이 개입하여 전우치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의식 위에서 나오도록 개작해야 했다. 그러나 신문관본은 전우치가 황금들보를 탈취하는 삽화까지만 개작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삽화는 경판 37장본의 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오고 있었다. 그 결과 전우치는 민중적 영웅이면서 동시에 공의(公義)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욕망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왜소한 인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함

정에 빠뜨려 괴롭히기도 하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신문관본 역시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⁵⁾

IV. 맺음말

이제 소설사적 측면에서 <전우치전>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려 한다. <전우치전>은 실재인물 전우치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었다. 문헌기록에 의지해 살펴 본 전우치는 타락한 지배질서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이었고, 도술로 이름붙일 만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며 민중적 지지기반을 넓혀 가다가 지배층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다.

문헌기록에 나타난 전우치는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다. 이런 점에서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전우치전>은 민중적 영웅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본을 분석해 본 결과 <전우치전>은 문헌기록에 나타난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제대로 작품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전우치에게서 사회의식을 거세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었는데, 경관 37장본과 김동옥본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부재는 민중적 영웅인 전우치를 지배질서를 대변하는 인물로 변모시키기도 했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공개념을 갖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틀로 재단해 버

45) 이것이 일찍부터 신문관본 <전우치전>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게 된 까닭이다.

김일렬,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의 비교 고찰(『어문학』30호, 한국어문학회, 1974.3, 56~66면).

조동일, 고전소설과 정치(앞의 책, 122~131면).

림으로써 영웅이 아니 왜소한 인물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또한 호정(狐精)에 취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인물로 폄하시켜 버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전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지배질서의 편에 서서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추구하도록 유형화되어 있는 통속적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에 대한 전우치의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희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욕구에서 눈 돌리게 하여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있었다. 통속적 영웅소설의 서사구조가 갖는 절대적 한계는 전우치를 개인의 출세와 영달에 집착하는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전우치의 행위는 집단 전체의 욕구나 이념을 실현하기보다 개인의 영달에 탐닉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던 실제 인물 전우치를 작품화하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19세기의 지배질서가 여전히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중적 영웅인 전우치를 호정(狐精)에 취해 세상을 어지럽힌 인물로 폄하해버리거나 민중이 아닌 지배질서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변모시키기도 하는 경판 37장본에서 지배질서의 작품 장악력은 쉽게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지향하는 통속소설의 서사 문법이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약화시키는 작품내적 장치로 작용함으로써 <전우치전>은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를 제대로 형상화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중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판 37장본에서도 전우치는 환상적인 방법이지만 지배질서에 대한 민중들의 반발을 대신해서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앞뒤를 재지 않고 나름대로의 정의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님으로써 사람들에게 친근한 인물로 다가오기도 한다. 김동욱본에

서는 경관 37장본에서 나타났던 반민중적 특성이 사라지고 그 대신 민중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며 민족적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마침내 전우치는 신문관본에서 비판적 사회의식으로 무장하고 민중들의 편에 서서 지배질서에 대항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경관 37장본에서 김동옥본으로 그리고 신문관본으로 이어지면서 <전우치전>은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모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우치전>의 개작자(改作者)들이 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우치의 민중적 영웅성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전우치전>이 감당해야 하는 본래적 영역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우치전>이 나타났던 19세기는 우리의 소설사에서 영웅소설로 불리는 작품들의 전성기로서 다양한 유형의 영웅소설들이 나타나 소설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영웅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형화된 서사구조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부재에서 파생된 통속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식을 거세하고 민중적 영웅인 전우치를 개인의 영달에 집착하는 인물로 변모시킨 것은 이러한 소설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우치전>은 거듭되는 개작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19세기의 영웅소설이 통속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해 가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우치전>이 사회의식을 강화함으로써 19세기의 소설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속화의 경향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은 전우치라는 실제 인물을 대상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우치가 지니고 있던 본래적 속성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19세기는 상층 사대부에서 하

층민에 이르기까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포함하여 전 계층의 사람들이 소설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설은 다양한 계층의 처지와 욕구를 담아낼 수 있었다. 지배질서에 비판적인가 하면 지배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는 등 이 시기의 소설이 이념적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학의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배질서의 이념이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었음에도 <전우치전>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소설사의 변화에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자 료 -

- 중종실록 14년 11월 15(을사)일.
명종실록 14년 10월 23(경신)일
金澤榮, 崇陽耆舊傳(김승룡 편역, 송도인물지, 현실실학사, 2000)
宋時烈, 論大義仍陳尹拯事疏, 『宋子大典』卷十五
李璽, 松窩雜說, 『大東野乘』卷五十六
李德洞, 『竹窓閒話』(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李晔光, 『芝峰類說』, 景仁文化社, 1970.
車天輅, <五山說林>
許筠, 惺叟詩話(『惺叟覆瓿藁』卷二十五).
班固, 王莽傳(『漢書』卷九十九).
김일렬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5』(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12)
박희병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소명출판, 2005. 4)

- 논 저 -

- 김일렬,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의 비교 고찰(『어문학』30호, 한국어문학회, 1974.3, 56~66면).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영남어문학』제18집, 한민족어문학회, 1990.12, 228~233면)
任仲燮, 王莽의 개혁과 평가(『東洋史學研究』51輯, 동양사학회, 1995, 1~82면)
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 설화(『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4, 242~243면).
변우복, <전우치전>연구(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2, 38~46)

면).

윤재근, 전우치전설과 전우치전(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2.7, 56~57면).

이종묵, 南裒의 삶과 문학(『한국한시작가연구』 4집, 한국한시학회, 1999, 33~74면)

이현국,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문학과 언어』 7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6.5, 144~150면).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 1971, 188~206면).

조동일, 고전소설과 정치(『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7, 118~121면)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고소설연구』 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66~71면).

<Abstract>

The alteration of heroic romance on <Jeon
Woo Chi Jeon>

Ahn, Chang-Soo

This paper is written to search for an aspect of the alteration of heroic romance according to the study as a real person “Jeon Woo Chi” and as a character in novel <Jeon Woo Chi Jeon>. The result is that the real person “Jeon Woo Chi” was the man who possessed the qualities of the public hero, but <Jeon Woo Chi Jeon> did not show the feature of the public hero as the real person “Jeon Woo Chi” because the critical social consciousness was eliminated in <Jeon Woo Chi Jeon>.

This difference was revealed in <Kyong Pan 37 Zang Bon> and <Kim Dong Uk Bon> remarkably. However, being connected to the different versions of later generations, <Jeon Woo Chi Jeon> was having exposing the feature of the public hero more remarkably. This is to show that authors, who adapted <Jeon Woo Chi Jeon>, have had an effort to expose the critical social consciousness.

Key Words : heroic romance, the public hero, social consciousness.

■ 논문접수 : 2011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11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1년 12월 12일